

글래서씨병



김 홍 집 대표
 (주)우리생명과학 · 수의학 박사
 대한양돈협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위원

1.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글래서병균(*Haemophilus parasuis*)에 대한 항체검사는 우리생명과학에서 플레이트 응집반응으로 실시하였으며, 응집항체가 8배를 기준으로 8배 이하는 항체 음성, 8배 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글래서병 예방접종 프로그램

- 글래서병은 모돈과 자돈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번식돈은 돈군에 합류하기 전에 2~3주 간격을 두고 2회 백신 접종을 실시한 다음, 6개월 마다 추가접종 하며, 자돈은 1주령과 3주령에 각각 1회씩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농장의 발생시기에 따라 3주, 5주로 조정 가능).

2. 농가별 발생 위험도 분석

가. 위험도 평가기준 및 위험유형분석

위축성비염과 동일하게 평가, 분석하되,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농가의 경우는 백신접종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백신접종시기(3~5주) 이후 단계에서 감염항체가(1,024배) 이하의 항체가 상승은 백신항체가로 인정하여 항체가 상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위험도 평가 결과

글래서병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발생이 없는 0등급 및 1등급의 농장이 각각 11.7%(7농가) 및 6.7%(4농가)이며, 81.6%(49농가)의 농가는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2, 3, 및 3등급의 농가로 분석되었다(〈표 1〉 참조).

<표 1> 농가별 글래서병 발생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

등급구분	농가별 위험도 평가결과		비 고 (발생위험도)
	해당농가수 (n=60)	%	
0~1	1	1.7	최 저
0~2	6	10.0	
1	4	6.7	저
2	29	48.3	중
3	-	-	고
4	20	33.3	

3. 농가별 감염시기 분석

글래서씨병은 홍막페렴보다 어린 일령인 5~8주령에 다발하며, 모돈의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이유기와 육성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다발일령과 유사하였다(〈표 2〉 참조).

<표 2> 농가별 글래서씨병 최초 감염시기 분석결과

비발생 농가수	농가별 위험도 평가결과						합계
	소계	포유기	이유기	육성 초기	육성 후기	비육기	
11 (18.3)	49 (81.7)	-	25 (41.7)	20 (33.3)	4 (6.7)	-	60 (100.0)

4. 종합

가. 글래서씨병은 80% 이상의 농가가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이유기와 육성초기에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는 모든 10%, 자돈 16.7%에 불과해 모든 및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관리 강화 등 감염 방지조치가 필요하다.

나. 모든의 경우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모두 양성인 농장이 많아 국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에 대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 5주령~8주령의 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위축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심하게는 2주부터 3개월령 돼지까지 발생한다. 이는 어미에게 이병의 백신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백신을 한 경우에는 주로 6~8주령 이후에 발생하고 안한 경우에는 2~3주령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병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모돈이 상당히 높게 감염되어 있어서 항체가를 검사해 보면 백신한 역가보다 더 높게 감염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병이 늦게 이루어진다.

라. 서코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 2차 감염균으로 늘 따라 다닌다. 살아남은 것은 만성 관절염 때문에 위축돈이 된다. 또한 위축돈과 폐사돈이 증가하므로, 농장에서는 사료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클레임을 제기 하는 수도 있다.

마. 감염돈은 사료를 거의 섭취하지 못하므로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감염돈 치료를 위해 항생제와 소염제를 함께 섞어 근육주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건강한 돼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제를 음수투약 한다. 백신의 효과는 매우 좋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밀사, 이동 스트레스가 심하면 재발되므로 주의 한다.

바. 백신은 국산 또는 수입 백신을 이용하여 자돈에 1주, 3주에 접종하고, 모돈도 동시에 접종해야 한다. 그 후 농장에서 본 병이 몇 주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1주, 3주에 할 것인지 3주, 5주에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및 자돈의 항체가를 측정해 보면 항체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백신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밀사나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등 사양관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소독은 이동 후 20% 생석회로 돈방을 소독해야 한다. **양돈**